

세계한인회장 초청 다과회 말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인회장단 회의가 보람 있는 모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저는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듣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우리 국력이 커져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많은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동포들이 그 사회에서 신뢰가 아주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동포가 많은 나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끄럽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있을 법한데 적어도 제가 다닌 여러 나라에서는 동포들이 모두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정상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러분도 대개 아시는 일이라서 결론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해외에 나가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에 오셔서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조국과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는 것,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를 저는 매우 크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나라를 잃었고 분단이라는 큰 고통의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번영으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을 이루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구한말 나라를 잃은 역사로부터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당시 국력이 약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국가전략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당당한 세계 10위권입니다. 경제·국방·문화·지적 수준 등이 상당히 와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는 고조선, 통일신라, 고려 초기, 조선 세종 시대가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질 국력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융성하고 강하며 역동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고 평등과 분배가 증진되는 진보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의 전쟁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력과 역사, 그리고 진보로 나아가는 세계 조류를 감안할 때 뒷걸음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 사람들이 패권주의와 국수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그 위에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주변국과 자주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적대하지 말고 우호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러한 방향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에서도 동포들 간의 갈등을 극복해 주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정치하는 동안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동포사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일이며, 남북 관계 발전에 큰 디딤돌을 놓아 주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번영하는 조국에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계속 뻗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